

■ 미국 '新경제(New Economy)'의 허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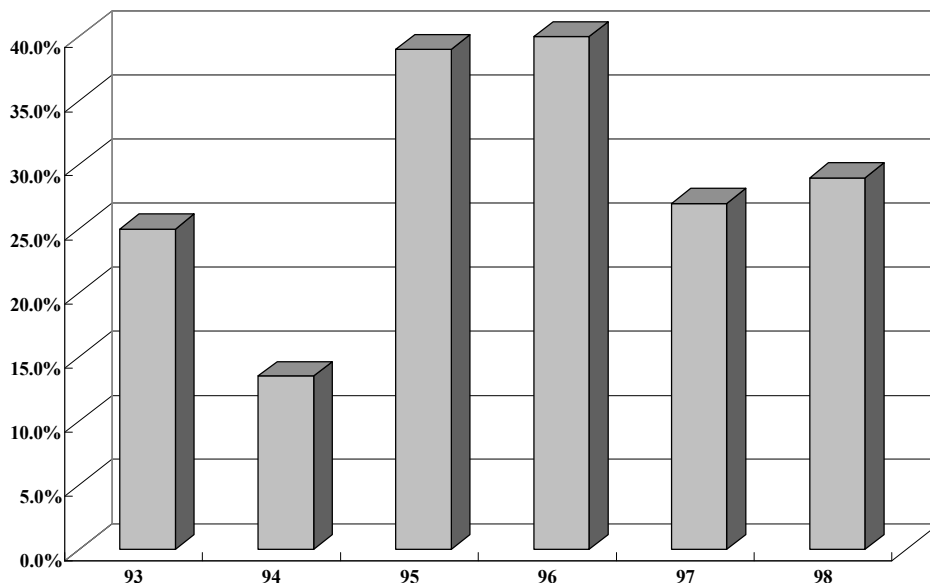
- (新경제의 개념) 신경제란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저물
가, 고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임
 -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을 계속
상회하면서, 인플레이션이 없는 지속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임
 - 그러나 정보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효과를
미치고 그 영향이 향후에도 영구히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
- (생산성 향상은 제한적) 노동생산성 향상은 주로 IT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음
 - 非농업 부문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90년대 후반 2.6%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
했는데, IT 부문을 제외한 경제 내 96.5%의 나머지 부분은 생산성 측면에서 90
년대 후반 들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더 하락했음
 - 즉 IT 생산 부문만이 주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, IT를
이용하는 나머지 부문은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. 또한 생산성 증가와 직
결되는 제품 가격 인하 효과도 IT 생산 부문에만 두드러지고 있음
 - 특히 인터넷 혁명은 경제 활동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지만, 2차 산업 혁명
기의 전기, 내연기관, 전화기 발명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제품 개념과 기능을 창
출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'일차적'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음
- (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) 8년간의 장기 호황을 거처온 미국 경제는 신경제
논리와는 달리 서서히 둔화 국면에 진입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
 - 美연준은 경기 과열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2000년초부터 6차례에 걸친 대대적
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, 4월에 들어 그 효과가 점차 발현되고 있음
 - 8년간 이어져온 자본 지출과 건설투자, 소비 지출에 의한 경기 호황 국면이 하
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임
 - 결론적으로 고용 창출과 IT 부문의 놀라운 생산성 증가는 분명히 인정해도 아직
생산성 증가가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어, 이것이 향후에도 장기적으
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

미국 '新경제(New Economy)'의 허실

□ '新경제(New Economy)'의 의미

- (新경제의 개념) 신경제란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저물가, 고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것임
 -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을 계속 상회하면서, 인플레이션이 없는 지속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임
 - 즉, IT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저물가 속의 성장세를 지속시켜 경기변동이 라는 개념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임
 - 실제로 규모 면에서 겨우 8% 정도를 차지하는 IT 생산 부문이 실질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30~40%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
 - 그러나 정보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효과를 미치고 그 영향이 향후에도 영구히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

< IT 생산 부문의 실질 경제성장률 기여도 >



자료: 美BEA(Bureau of Economic Administration), March 2000.

< 美상무부의 IT 산업 구분 >

구분	산업 내용
IT 생산부문	- 반도체 제조, 컴퓨터 및 장비 도소매, 컴퓨터 및 관련 장비 제조, 마그네틱 혹은 광학기기 제조, 정보통신기기 제조, 전자 튜브 제조, 라디오 방송 기기 제조, 전자부품 및 서킷보드 제작, 전화 통신사업,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제조, 케이블 및 유료채널 서비스, 전기계측 기기, TV 방송 기기, 각종 고급 분석·계측 기기 제조
IT 사용부문	- 정보통신 사업자, 증권 및 금융 상품 중개, 경영자문서비스, 건강 관련 서비스, 영화, 전문 투자기관, 법률 서비스, 도매업, 부동산 신탁업, 보험 에이전트와 브로커, 예금은행, 非은행금융기관, 에너지 채굴, 정유업체, 석유화학 업체, 발전 업체

자료: 美상무부.

□ **신경제의 향후 추이와 관련된 논의**

- (신경제와 관련된 논의) 신경제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들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생산성 증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
 - 90년대 미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세와 컴퓨터 기술 진보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산출과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이미 학자들간에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음
 - 그러나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은 첫째, 컴퓨터 생산성 혁명이 과연 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게 흡수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며,
 - 둘째, 총생산성 증가가 최근 5년과 같은 속도로 향후 10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임

□ **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이다**

- (생산성 증가는 일부에 국한) 생산성 통계를 보면, 노동생산성 향상은 주로 IT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
 - 74년과 90년 사이 非농업 부문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연간 평균 1.4%씩 상승했지만, 91년과 95년 사이에는 1.5% 상승하고 96년에서 99년 사이에는 2.6%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음

- 이같은 성장세는 IT 부문의 혁신적인 생산성 증가와 연관이 있으나, IT부문을 제외한 경제 내 96.5%의 나머지 부분은 생산성 측면에서 90년대 후반 들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더 하락했음
 -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경제 전부분의 생산성을 배가시켰다는 단선적인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음
- (측정 방식 변경 후에도 같은 결과) 美노동통계국(BLS)의 생산성 측정 방식을 감안하여 수정했을 때에도 일부의 변화만 나타날 뿐임
- 생산성 추계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, 노동생산성 증가는 컴퓨터 산업 부문에 국한되지는 않음
 - 이 통계를 이용할 경우, IT 생산 부문을 제외한 IT 사용 내구재 부문의 계절조정된 노동생산성은 90년대 후반에 0.4%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그러나 이 경우에도 IT 생산 부문과 IT 사용 내구재 부문의 생산성은 증가했지만, IT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부문이나 非내구재 부문의 생산성은 95년 이래 별다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(계절 조정후 0.05% 상승)
- (총요소생산성의 차이) IT 생산 부문만이 주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, IT를 이용하는 나머지 부문은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
- 노동생산성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본 증가와 총요소생산성 증가(기술진보)의 결합에 의해 향상됨
 - 총요소생산성을 IT 생산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분해 보면,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자본 증가와 IT 생산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문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
 - 즉, IT 생산 부문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, IT를 많이 이용하는 금융, 보험업계 등 금융 서비스 업체들은 생산성 증가에서 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됨
 - 따라서 IT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서만 노동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함
 - 만약 하이테크 산업만 높은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낮은 것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힘들

< 산업별 1인당 총산출 증가율 >

산업분류	연평균 성장률(1990-1997)
총 비농업 민간 부문	1.4
IT 생산부문	10.4
상품	23.9
서비스	5.8
IT 사용 부문	-0.1
상품	2.4
서비스	-0.3
IT를 이용하지 않는 부문	1.1
상품	1.3
서비스	1.3
IT 생산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 부문	0.5

자료: 美BEA, 美BLS(Bureau of Labor Statistics), August 1999.

- (제품 가격 인하 효과도 한정적) 생산성 증가와 직결되는 제품 가격 인하 효과도 IT 생산 부문에만 두드러지고 있음

- 경제 전체적인 저물가 기조 유지에는 IT 생산 부문이 큰 몫을 차지했지만, 여타 부문에서는 제품 가격이 90년대 초반 이래 꾸준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
- 생산성 향상 속도를 감안할 때, 연간 10% 이상의 제품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, 97년에 들어 IT 생산 부문의 제품 가격 하락률이 7.5%에 이른 것은 향후 인하 폭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줌

< IT 생산 부문과 여타부문에서의 제품 가격 변화 >

	1993	1994	1995	1996	1997
IT 생산 부문	-2.4	-2.6	-4.9	-7.0	-7.5
경제내 여타 부문	3.0	2.7	2.8	2.6	2.6
GDP	2.6	2.4	2.3	1.9	1.9

자료: 美상무부, July 1999.

- (고용 구조상의 변화를 무시) 대기업들의 고용 축소를 통해 높아진 노동생산성을 보고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
 - 즉 중소기업으로의 고용 이전을 통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이를 전부 기술력 상승에 따른 생산성 증가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임

- (인터넷 혁명의 과대 평가) 인터넷 혁명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지만, 경제 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만한 사회적 현상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
 - 미국 생산성 증가의 황금기였던 2차 산업 혁명기(1860~1900년)에는 전기, 내연 기관, 나일론, 전화기 등이 한꺼번에 발명되었음
 - 이러한 변화들은 당시 사회 전반을 바꾸어 놓은 ‘일차적(first-order)’ 발명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및 전자 기기, 송·배전 설비, 합성섬유 등 2차적 차원의 기술 혁신들이 연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
 - 인터넷은 비즈니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TV, 우편, 신문 등 다른 수단들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했지만, 완전히 새로운 제품 개념과 기능이 창출된 ‘일차적’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음
 - 또한 경쟁사들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IT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함. 이는 결국 이윤 재분배의 문제이며, 경제 전체 생산성의 혁신적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님
 - 또한 인터넷이 작업 효율을 증진시키는가에도 의문이 남아있음. 여러 매체에 보도된 조사들대로 웹 사용자들은 가정에서보다는 직장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 - ※ 직장에서 가장 많이 접속하는 웹사이트가 경매업체인 e-bay와 사이버 트레이딩 사이트로 판명되었고, 많은 BtoC 사이트들의 경우 밤보다는 업무 시간인 낮에 접속 자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

□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된다

- (실물 경기 둔화 양상) 8년간의 장기 호황을 거처온 미국 경제는 신경제 논리와는 달리 서서히 둔화 국면에 진입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

- 美연준은 경기 과열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2000년초부터 6차례에 걸친 대대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, 4월에 들어 그 효과가 점차 발현되고 있음
-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0.3% 감소했으며, 6월 소비자신뢰지수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둔화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
- 경기선행지표인 5월 신규 주택 착공도 전월대비 3.9% 하락하면서 6년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음.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향후에도 주택 착공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는 상황임
- 자산 효과(wealth effect)를 통해 민간소비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미국 증시도 2000년 6월 현재 99년말 대비 5% 이상 하락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
-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의 바로미터인 고용비용지수 상승률도 1/4분기에 들어 4.3%로 급등하면서 기업의 고용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도 훼손될 것으로 보임
- 이처럼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지표들 중 80% 이상이 이전에 비해 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

< 소득 및 소비 지출 증가율 추이 >

	2000.1	2	3	4	5
개인소득(경상)	0.7	0.5	0.7	0.6	0.4
가처분 소득	0.4	0.4	0.7	0.5	0.4
경상	0.2	0.0	0.3	0.4	0.4
불변(1996년 기준)					
개인소비지출	0.7	1.2	0.7	0.2	0.2
경상	0.5	0.8	0.2	0.2	0.2
불변(1996년 기준)					

- (연착륙 국면에 돌입) 2000년 미국 경제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둔화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
 - 8년간 이어져온 자본지출과 건설투자, 소비지출의 강세국면이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임
 - 2000년 하반기 이후 저당 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부문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률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

기획 분석

-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(PCE price index) 증가율은 2% 정도로 유지되면서 눈에 띄는 인플레이 현상 없이 연착륙 국면에 이를 전망이다

< 미국 경제 중기 전망 >

	2000	2001	2002	2003
실질GDP증가율	4.9	3.6	3.4	3.6
소비자물가상승률	3.0	2.0	2.3	2.5
3개월 TB	5.8	6.3	5.9	5.6
산업생산증가율	5.4	3.7	3.3	3.3

(%)

□ 신경제 현상은 점차 약화된다

- (신경제 효과의 약화 가능성) 결국 '신경제' 개념은 현실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많음
 - 컴퓨터 기술 혁명은 과거의 발명들처럼 패러다임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기술 혁신의 경제 전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임
 - 고용 창출과 IT 부문의 놀라운 생산성 증가는 분명히 인정해도 생산성 증가의 경제 전체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며, 또한 그것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것임
 - 즉, IT 혁명으로 인해 경기 변동의 진폭은 줄어들겠지만, 경기 변동 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, 미국 경제는 금년을 고비로 연착륙에 진입할 전망이다
 - 신경제 현상의 약화와 아울러 나스닥 시장의 IT 관련주 역시 완만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임
 - 유럽과 일본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 속도가 미국 보다 늦어 IT 혁명에 따른 신경제 효과가 현시점부터 나타날 전망이지만, 4~5년 후에는 다시금 경기 후퇴 국면을 겪게 될 전망이다

■ 양성수 주임연구원 yangs@hri.co.kr ☎3669-4030